



상품판매 강제할당 금지를 위한 중앙상집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노동조합은 상품판매 강제할당 금지, 비영업직에 대한 상품판매 금지 및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등 현안문제의 심각성을 사측에 강력히 시정 촉구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측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현장 조합원들의 인내도 한계 상황에 이르러 노동조합 중앙상집은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 ◆ 일시 : 2004.6.2(수)~ 무기한 철야농성
- ◆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 ◆ 대상 : 중앙본부 상집간부 전원

이에 노동조합은 강제할당 상품판매 금지, 비영업직원에 대한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러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각 지방본부에서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본부 지침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투쟁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의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단체교섭 무기한 연기 결정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2일 중앙상집회의를 통하여 결정했다.

이는 2004년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임금인상이나 단체교섭보다는 강제할당 상품판매, 연월차 문제가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문제이며, 현장조합원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투쟁지침1호

노동조합은 6월2일을 기해 2004년 단체교섭관련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강제상품판매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 하였다. 따라서 전국지방본부는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투쟁지침 1호"를 시달하니 일사불란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1)지방본부,지부,분회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
- 2)조합간부 투쟁조끼 상시착용
- 3)조합원 홍보활동 강화
(조합 홈페이지 투쟁속보 활용)
- 4)지부 조합간부 1일 1회이상 미팅
(현상황 공유)
- 5)지방본부는 산하 지부, 분회 투쟁지침을
점검하여 일일보고

2004년 6월 3일

투쟁지침2호

1. 지방본부는 6월 7일자로 철야농성에 돌입
 - 지방본부, 지부 출근 선전전 매일실시 자료: (KT-iman으로 배포)
 - 지방본부 구심점 강화
 - 각 지방본부별 조합간부 긴장감 고취 및 공감대 형성
2. 지부 게시판, 휴게실 대자보 부착(성명서 1호)
 -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시켜라!"
3. 상품강매사례 신고센터 운용
 - 각 지방본부별 운용
4. 철야농성 행동수칙 준수

◆ 철야농성 행동수칙 ◆

- 하나. 나는 개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투쟁기간에는 음주를 절대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사측의 어떠한 회유나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 하나. 나는 개인보다 조직 전체를 먼저 생각하겠다.
- 하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하나. 나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과 함께 하겠다.

긴급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노동조합은 3일 14:00시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강제할당 상품판매 문제 해결과 향후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지재식위원장은 "상품판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년동안 지속되 왔던 문제로 작년도 노동조합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판매를 합의하는 등 상품판매가 적절하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강제할당 상품판매 문제는 지역본부장이나 현장관리자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죽여야 하는 생존게임으로 전략함으로 인하여 현장은 피폐화해지고 조합원들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노동조합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의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상품판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측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할수 밖에 없었으며, 상품판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임단협이든 무엇이든 간에 더이상 한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다.

금번 투쟁은 단지 합의서를 도출하려는 투쟁이 아닌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상품판매 문제는 끝을 봐야 한다"고 강하게 설명하고 "사측의 대응에 따라서 조직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투쟁지침을 지방본부에 하달하겠으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방본부위원장들은 "당연히 했어야 할일"이라며 "지방본부뿐만이 아니라 지부장들도 상품판매 문제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전체 지방본부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성명서>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시켜라!

**강제할당 상품판매 금지, 비영업직원 상품판매 금지, 상품판매전담팀 해체 등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004년 단체교섭은 무기한 연기하고,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은 6월2일을 기해 단체교섭관련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강제상품판매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현재 KT는 상품판매 강요로 인해 종사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영업국 조합원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현장 조합원들은 흡사 피라미드 판매조직을 연상할 만큼 자신의 모든 인적관계를 동원하여 상품판매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더 이상 동원할 사람이 없어 자신의 봉급을 털어 자백을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상품판매전담팀은 매일 시간대별 업무실적 보고, 마케팅 지원비 미적용, 마케팅 선장품 미지급, 현실성 없는 판매 매출액 과다 책정 등 온갖 차별관리도 모자라,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감시활동 등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전북지방본부의 조합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KT의 모든 종사원은 출근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상품판매에 몰두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상품판매가 우선 순위가 돼버렸다. 고유업무는 뒷전이고 상품판매에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는 현상은, 당연히 서비스 저하와 고객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앞에서는 상품판매로 인해 매출이 늘지만, 뒤로는 그 몇 배에 상당하는 결과가 감소되고 있으며 비용만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수경영인 것이다.

하지만 KT 경영진들은 매출목표액에 목이 매여 우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써 이런 비정상적인 경영을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장의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지침마저 공염불이 되는 심각한 조직체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통 해결과 노사간에 수없이 합의한 상품판매 관련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KT가 허수경영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금번 노동조합의 투쟁은 KT를 살리기 위한 총정이며 마지막 몸부림임을 경영진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전에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금지와 지속적인 점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총력을 모아 투쟁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04년 6월 2일

KT노동조합

<성명서>

비정상적인 영업을 야기시키는 통신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

1. KT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판매 강요는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경영에 의한 것이지만 그 뿌리는 공기업 시절 말에 도입된 매출 지상주의의 시스템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개된 졸속적인 민영화에 있다.

공기업 시절에 도입된 경영계약식은 KT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의 기업과 같이 매출을 중심으로 경영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KT는 영업에 대한 기반이 전무하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내 몰려 졌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선 사업자로서 서비스 유지 보수 특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시절 KT는 수익성과 무관한 시험적 사업에 배치되고, 검증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기업체에 배정하는 차별을 받아 왔고, 유선 사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무선사업에는 진출을 제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결국 정채된 사업 환경과 차별적 통신정책으로 인해 KT는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98년의 6만 5천여의 직원이 2004년 3만 8천여명으로 감축되었으나 구조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 상품판매를 강요 당할 수 밖에 없고 고용불안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무선 사업 진출을 차단당하고 신규사업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KT는 결국 편법과 무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 몰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며 팔짱을 낀 채 산하 통신위원회를 동원하여 규제와 감시의 칼만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지금 노동조합은 현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조합원의 고통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판매 강요가 KT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상 경영이 실현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지나친 규제 중심의 MNP는 통신업체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단말기 제조업체만을 살찌울 뿐이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MNP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통신 시장에서 특정업체의 지나친 독주는 구조적 특혜에 기인하고 있다. 시장 선점과 유리한 주파수 배정 등의 특혜 조건과 KT에 대한 특별 규제 등은 가리워진 채 겉으로 보여 주기 식의 균등한 통신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주파수 배정, 위성 DMB 사업, LM 통화료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유선 사업자는 그 동안 각종 규제에 의해 매출과 수익성 등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휴대 인터넷 사업을 유선사업자에게 배정하고 유무선 결합 상품을 조기에 도입케 하는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 유선통신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3일

KT노동조합

중앙상집, 3일 출근선전전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상집은 3일 아침 07:30분부터 09:00시까지 본사에서 출근선전전 진행했다. 중앙상집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품판매의 고통을 본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상품판매 금지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출근하는 본사 조합원들도 조합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을 꼼꼼히 읽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철야농성 첫날인 2일 21:30분부터 향후 투쟁과 방향에 논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중앙상집은 단결된 모습으로 상품판매 금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중앙상집은 과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지 합의서 작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금지와 지속적인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불이행시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4일 출근선전전, 정부 통신정책 비판

철야투쟁 3일째를 맞는 4일 중앙상집은

출근선전전에서 비정상적인 영업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유인물을 통해 “현재 KT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판매 강요는 잘못된 경영으로 기인한 바가 크지만 그 뿌리는 공기업 시절 말에 도입된 매출 지상주의의 시스템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개된 졸속적인 민영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근시안적인 판매 강요가 KT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상 경영이 실현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정상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MNP 및 비대칭 규제 등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대토론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노사간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동조합은 노사대토론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현장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과 그리고 향후 토론회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토론회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사안별 분류하였다.

기 구성된 노사간협의체를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 개선과 KT미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사대토론회의 총괄평가는 '자료실/문서자료'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단체교섭 요구(안)

- ① 노동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 ② 우리사주조합 지분확대 (ESOP 무상출연)
- ③ 상품판매 전담팀 운영에 관한 사항

6주간KTU

■ 제도개선협의회 요구(안)

- ① 직군직렬 통폐합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조직개편 문제점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통신정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요구(안)

- ①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장 직접선출에 따른 규약변경 및 총회 개최

■ 고용안정위원회 요구(안)

- ① 노사 대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기별 개최 및 중앙본부/지방본부위원장/지부장 순번개최
- ② 협력업체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 상품판매운영위원회 요구(안)

- ① Clean KT 운영 및 KT-PCS 판매에 관한 사항

31일, 성남지사 수내지점 KT꿈나무 어린이집 개원

직장보육시설인 KT꿈나무어린이집 개원식을 KT성남지사 수내지점에서 31일(오늘) 가졌다.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이번 꿈나무 어린이집 또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올해 65명의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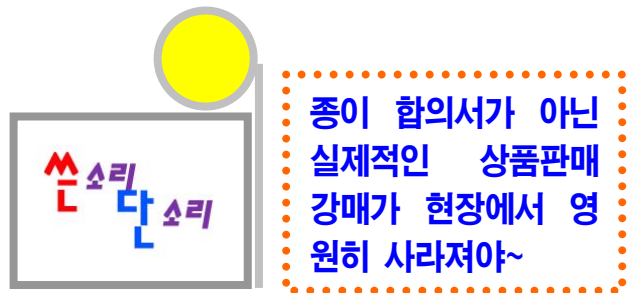
한편, 현재 분당지점, IT본부, 일산지점 등 총 4곳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됐으며 분당지점을 제외한 보육시설은 8대 집행부 들어 설치된 곳이다.

조합원 사망에 따른 진상조사단 파견

노동조합은 부산본부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조합원 사망에 따른 진상조사단을 1일 파견했다.

부산지방본부의 지난 30일 1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9일 오후 10시경 잠이 든 후 30일 오전 7시경 부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재 유족측은 RM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재홍 산업안전국장을 급파하여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얼마만에 들어보는 ‘철야농성’, ‘투쟁의 함성’ 인가?

2004년 임단협을 위한 출정식마저 무기한 연기시키고, 현장 조합원의 고충을 진정 해아려준 중앙본부의 투쟁소식에 감격이 밀려온다.

현재 KT현장은 상품판매로 인해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 비영업직 사원들중 자폭을 수십대 씩 한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또 KT직원을 둔 가족들은 휴대폰 동냥을 위해 사돈의 팔촌에 동창, 이웃 할 것 없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묻혀 생활해 오고 있다.

상품판매 자폭. 이 말은 7~8년 전에 나왔고 이번에도 노동조합에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판매 금지를 들고 나왔다.

상판금지에 대해 무수한 강제금지 합의서가 남발되어 왔고 위반에 대한 기관장 문책이라는 것은 단골메뉴로 등장하였다.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주면서 상품판매는 매출액이 정체된 현재의 KT의 위기를 타계할 유일한 방법인양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이내 그 공백을 채우며 우리 KT현장을 초토화 시키며 자생해 왔다.

이젠 더는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KT가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자폭으로 일관한 상품판매가 과연 KT를 지켜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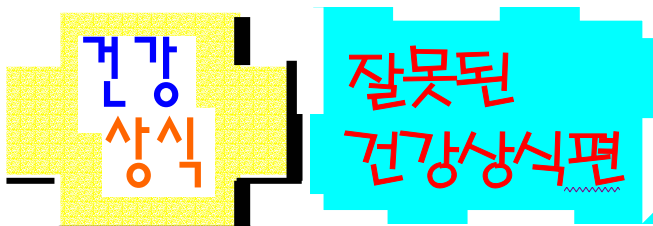
정말 단기적인 성과와 결과물을 보이질 말자.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직원들의 자폭으로 밖에는 지켜지질 않는단 말인가?

현장에서는 “내 월급을 아예 휴대폰 목표만큼 떼 가고, 남는 돈만 돌려달라.”며 상품판매에 과중한 스트레스에 너무나 지쳐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현장의 정서를 현실 있게 받아들이는 노동조합이 결코 조합원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다.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외에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더 이상은 KT에 없다.

성명서에 밝혀주신 굳은 의지대로 이번만은 상품판매 금지에 대한 중앙본부의 종이 쪼가리 합의서가 아닌 실제적인 상품판매 강매가 현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기에는 주사가 최고?'

'감기에는 주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건강상식이다. 현재 감기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기약은 콧물 기침 열 등의 증세를 다소 경감시킬 뿐 병 자체를 낮게 하는 능력은 없다. 물론 감기에 걸렸다고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다.

감기주사의 주성분인 해열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비타민 포도당 등은 감기 자체에는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면 부신피질호르몬제는 마약과 같아서 맞을 때는 입맛이 나고 기분도 좋지만 중국에는 감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항생제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을 뿐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도 주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교수는 "일반국민들간에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데다 감기의 경우 약국을 먼저 들렀다가 의사를 찾기 때문에 약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더 빨리 나은 경우는. 이는 감기 증세가 심하지 않았거나 심리적인 위약효과 때문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분석이다.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잘못된 건강상식과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엉뚱한 민간요법이나 치료법 등에 의존하다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건강상식을 정리해 본다.

'속쓰림에는 우유가 좋다?'

'음주 전에 우유를 마시면 위장이 보호된

다'. 애주가들에게 상식처럼 통하는 말이다. 이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만 정확한 건강 상식은 아니다. 속쓰림은 맵고 짠 식생활로 인해 소화성궤양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성궤양은 위 또는 십이지장의 공격인자와 방어인자 사이의 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위산과 같은 공격인자가 방어인자보다 강할 때 궤양이 발생하는 것이다. 칼슘은 위산분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약알카리성인 우유를 마시면 위산을 희석 또는 중화시켜 일시적으로 속쓰림을 완화시켜 준다. 그러나 우유에 많이 포함된 칼슘이 다시 위산분비를 촉진, 속을 더 쓰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소화성궤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담배와 술 중 위궤양 환자에게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십중팔구는 술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다. 술은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담배는 위로 들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헐고 미세한 점상출혈이 생긴다.

그러나 알코올로 인해 위벽이 손상을 입어도 궤양까지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며 기껏해야 위염정도를 일으킨다. 일정기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빠른시간 내에 위 점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반면 흡연은 위궤양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구결과 흡연자의 위궤양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이미 위.십이지장궤양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위벽의 혈류량을 감소시켜 궤양을 더 악화시킨다. 또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위벽보호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담배를 더 피우게 되므로 속이 쓰리거나 궤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설사를 할 때는 무조건 굶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급성설사로 장의 흡수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

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분과 식사가 설사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콜레라 등으로 심한 설사를 할 때는 시간당 최고 1 리터의 수분 손실이 초래되므로 자칫 탈수증세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설사를 막기 위해 설사의 양에 따라 수분 전해질 염분 등을 보충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에 해롭다?

흔히 접하는 잘못된 눈상식 중의 하나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에 해롭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환경과 시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안과 전문의들의 분석이다.

과거 촛불이나 석유등 밑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TV를 가까이서 보면 시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물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눈에 피로가 올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TV나 책을 가까이 보는 것은 안구 조절능력이 뛰어나 가깝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지 이 같은 행동이 눈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콘택트렌즈가 근시를 교정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콘택트 렌즈는 각막을 눌러서 일시적으로 근시를 완화해 주지만 영구적인 시력교정 효과는 없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과 상식중의 하나는 안경을 쓰면 눈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여기는 것. 부산백병원 안과 신성균 교수는 "근시는 눈의 앞뒤길이가 정상

인보다 길기 때문에 생긴다.

근시가 있는 어린이는 몸이 성장함에 따라 눈의 앞뒤 길이도 함께 길어져 눈이 자꾸만 나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세 정도가 되면 신체의 성장이 멈추므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력과 돛수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환자도 많다.

서울대병원 안과 이진학 교수는 "자신의 시력이 0.1인데 어떤 돛수의 안경을 써야 되느냐고 묻는 환자를 흔히 본다"면서 "물론 시력이 나쁠수록 돛수가 더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력을 돛수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력은 측정할 때마다 다르고 같은 돛수라도 사람마다 적응 정도가 다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과상식중에는 오히려 치아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식후에 껌을 씹으면 치아에 좋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등은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치과상식. '사탕은 무조건 치아에 나쁘다' '임신 중에 치과에 가면 치아가 약해진다' '유치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등도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치과상식이다.

사탕은 과거 이를 썩게 하는 원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탕과 같은 맛을 내면서 세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당분이 나와 있고, 심지어 세균을 억제하는 당분까지 개발돼 사탕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신중 치아치료도 본인은 물론 태아의 건

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를 뽑을 때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는 치아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태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희대치과병원 최유진 교수는 "치통으로 인한 임신 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태아에 더 나쁘다"고 설명했다.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면 영구치가 고르게 자라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다. 따라서 젓니에 생긴 충치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사철 푸른 대숲의 시원함과 초록빛 웅단처럼 펼쳐져 있는 보성차밭 여행, 도곡온천에서의 유황 온천욕과 변산반도 서해안을 둘러보는 1박 2일 코스로, 주말 및 휴가여행을 계획한 연인, 가족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 대나무골 테마공원

전남 담양군 대나무골 테마공원은 3만여 평에 이르는 고지산자락을 따라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선 가운데 대숲이 1만여평에 걸쳐 하늘을 가리고 뽀뽀하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밭 밑동에는 대나무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차밭(죽로차)이 연초록 웅단처럼 펼쳐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울창한 대나무숲길 사이로 조성된 죽림욕 산책로.

맹종죽과 왕죽, 분죽, 조릿대(산죽)가 뺨뺨한 사이로 청량한 대숲 바람을 맞으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산책로에 들어서면 열은 밤꽃냄새같은 대잎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이처럼 뛰어난 풍치때문에 공원내 대숲에서 드라마 다모, 여름향기와 영화 흑수선이 촬영되기도 했다.

♣ 대한다원 보성차밭

국내 최대의 차밭, 대한다원은 보성에서 가장 먼저 차 재배를 시작한 농원이다. 다원은 들어서면 길목이 아름답다.

총총히 곧게 뻗어오른 삼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숲 한가운데로 난 오솔길, 그 길 끝에 대한다원이 있다.

삼나무숲을 지나면 산기슭까지 이어지는 차밭은 약 5만평에 이르며, 계단처럼 층층히 이루어져서 올라갈수록 아름다운 차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 그 속으로 묻어나는 신비감이 더해진다. 대한농원 안에는 찻집과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녹차의 담백한 향을 직접 맛볼 수 있다.

♣ 도곡온천지구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원화리 일원에 자리하고 있는 도곡온천은 남도를 관광하면서 한번쯤 들러 심신의 피로를 씻고 가기에 좋은 곳이다.

국내 온천 중에서 유황이 가장 많이 함유된 도곡온천은 각종 만성질환과 신경통, 관절염, 습진 등 피부질환에 좋다.

남녀 대온천탕과 노천탕, 수영장, 유아풀장 등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천년고찰 내소사와 푸르른 전나무숲길

전라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변산반도.

그 안에 터를 잡은 내소사는 백제 무왕 33년 (633)에 창건된 절로 절이라기보다, 마치 정교한 건축물을 보는 듯 하다.

각아 세운 듯한 가인암을 병풍처럼 두르고, 단청이 퇴색하여 나뭇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고풍스런 모습이 아름답다.

절 입구 매표소로부터 300m 가량 늘어선 울창한 전나무 숲길을 벗어나면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단풍숲길.

천왕문을 지나면 할아버지 당산목이 있고, 꽃창살무늬의 대웅보전에 얽힌 목수와 화공의 이야기에 천년의 향기가 풍긴다.

최근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요양중인 보모상궁의 수발을 위해 장금(이영애)가 오게된 '운암사'로 내소사의 단풍숲길과 봉래루, 대웅보전이 드라마배경으로 촬영되었다.

♣ 변산반도 채석강 자유해수욕

외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수만권의 책을 포개 놓은 듯한 퇴적암이 층암 절벽을 이루고 있는 채석강을 꼽는다.

채석강은 강이 아니라 썰물 때 드러나는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200m) 일대의 층암 절벽과 바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고, 손때가 묻은 오래된 책을 쌓아놓은 듯 한 채석강에서 자연의 신비와 시원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